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2월 18일(주일) 제1422호

“나눌수록 따뜻해집니다!”



지난 3일 하늘대학부가 사랑앓아눔으로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생필품, 식품키트 등을 전달했다.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 12월 25일까지 사랑앓아눔, 서울 지역 1천 55가구에 생필품 전달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토)과 10일(토) 진행된 ‘사랑앓아눔’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25일(주일)까지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이어진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행사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지역교회와 쪽방촌, 다문화센터 등지에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간다. 지난 12월 10일(토)부터 25일(주일)까지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97개 팀이 참가하고 있다. 여호수아청년부 24개 팀 지

역교회, 장애인, 다문화가정, 갈렙청년부 3개 팀 지역교회, J4U청년부 6개 팀 지역교회, CH PLUS청년부 1개 팀 다문화가정, SNS청년부 27개 팀 지역교회와 북한선교, 군부대, W청년부 3개 팀 지역교회, 길청년부 1개 팀 지역교회, 요셉청년부 3개 팀 지역교회, 다문화가정, 하늘대학부 7개 팀 지역교회, 허브대학부 18개 팀 지역교회, Pole2대학부 3개 팀 지역교회를 섬긴다.

‘사랑앓아눔’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쪽방촌, 차상위계층,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다. 지난 12월 3일(토)과 10일(토) 서울 시내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교회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서 1천 55가구에 생필품, 쌀, 반찬 등을 전달했다.

/ 홍하영 기자 hh0@onnuri.org

12월 24, 25일 성탄주일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7시, 9시 30분

12월 24일, 25일은 성탄주일이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탄주일예배에서는 주향찬양사역팀이 ‘글로리아(존 루터)’, 양재온누리교회 성탄주일예배에서는 주경배 찬양사역팀(도곡)이 ‘빛의 축제’를 주제로 칸타타를 한다.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 일정도 나왔다.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토)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오전 9시와 11시 30분, 오후 7시와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린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한다. 1월 1일 신년예배는 캠퍼스별 일요주일예배로 대체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시작!

1월 20일까지 월~금 오전 5시 30분

2022-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길, 진리, 생명’이 막 올랐다. 지난 12월 12일(월)부터 내년 1월 20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시작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에서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재훈 담임목사가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12일 ‘어떻게 절대선이 존재할 수 있는가?’, 13일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14일 ‘어떻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가?’, 15일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는가?’, 16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가 주제였다(메시지 4-5면).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진리’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할 예정이다. 19일 ‘은혜와 진리’, 20일 ‘예배와 진리’, 21일 ‘자유와 진리’, 22일 ‘성령과 진리’, 23일 ‘거룩과 진리’를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요일별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일 차세대와 대학청년,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CGNTV 다큐멘터리 한국기독교연론대상 수상

〈신학 하는 요즘 애들〉 최우수상,
〈미씽유〉 우수상

CGNTV 다큐멘터리 〈신학 하는 요즘 애들〉과 〈미씽유〉가 제14회 한국기독교연론대상에서 각각 기독교문화 부문 최우수상과 선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학 하는 요즘 애들〉(박소연 연출)은 신학생들의 일상을 통해서 젊은 신앙인들의 자화상을 그려낸 다큐멘터리다. 〈미씽유〉(조은희 연출)는 코로나19로 순직한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끝까지 사명을 다한 선교사들의 모습이 큰 울림을 준다. CGNTV는 2015년부터 한국기독교연론대상에서 8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상작들은 CGN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기독교 OTT ‘풍당’ 앱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맛있는 말씀 해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핵심을 ‘영과 진리로(in spirit and truth)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4장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도중 갑자기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면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요 4:21~24)을 생각해보면 첫째, 앞으로 참된 예배 시대가 올 것이고(십자가의 사역 완성 이후), 둘째, 참된 예배란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예배 갯신이 있을 것이며, 셋째,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

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열 왕국 당시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3년 동안 포위를 당하다가 BC 722년 완전히 멸망하고 앗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본토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강제적인 이방인들의 혼혈정책과 이주정책으로 인해 정체성을 모두 상실해 버리고 만다(왕하 15:29~31). 그때부터 정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를 매우 적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정치적, 종교적 노선을 가도록 만들어 버렸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모세오경을 거부하고, 사마리아오경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유대인의 성지라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산당을 만들어 편리하게 예배드리고 있었다.

복잡한 사생활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공히 예배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모두 마음을 없고, 건물을 숭배하는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위선적이었고, 외식하며 율법주의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셔야만 했던 것 같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b).

참된 예배에 대해 예수님은 앞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의 공간을 넘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새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나타날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영’이란 성령(요 7:39, 20:22)을 가리키고, 진리(요 14:6)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영’은 ‘육체’와 반대되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다. 요한일서에서 ‘빛’(요일 1:5)과 ‘사랑’(요일 4:8)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듯,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할 때의

영은 생명(요 6:63)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구절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말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자의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영혼이 거듭나고, 진정한 마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성품을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란 어느 특정 시간과 공간인 교회 안에 갇혀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일상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이라 할 수 있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죄로 허무해진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12월 19일~ 12월 25일

전도서 7:1~8:17;

성탄절 QT



목상포인트 1: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혜가 있든 우매하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래 죽음을 묵상하며 현재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죽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매한 자들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나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에 쉽게 빠진다. 또 형통함과 곤고함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까지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자.

▶전도자는 잔칫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한다.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죽음을 묵상하면 현세의 삶을 돌아보고, 내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 우매한 자의 노래(아침)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고,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인내)이 유익하다. 지혜는 유산이나 그늘과 같아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생명을 준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는 것이 지혜다.

목상포인트 2: 사람의 지혜는 유한하다. 사

람은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사람이 보기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더 큰 악을 스스럼없이 행한다. 그들은 악을 행함에도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죽은 후에는 악행이 잊힌다. 사람의 유한한 지혜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 악인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끝이 분명히 있다.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세상만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만, 우매한 자는 그렇지 않기에 화가 임한다.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바람, 죽을 날, 전쟁의 현상과 결과를 바꿀 수 없다. 권력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악인에게서 벗어나야 할 수 없고, 생전에 행한 그들의 악행이 죽음 이후에 잊히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다.

목상포인트 3: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오심을 경계한다. 그는 예수님이 나신 장소를 파악해 그분을 죽이려는 계락을 세운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마음 다해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다. 우리를 죄

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자.

▶예수님은 헤롯이 왕일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자 예루살렘이 소동한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나신 장소를 묻는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성경의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한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앞서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 그리고 꿈속에서 지시를 받아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모든 인생은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죽음은 나중 일이 아니라 당면한 일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수 있음을 생각하고, 나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보자. ▶불의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 지혜의 결과다.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 다르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좌에 계신지 점검해 보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해 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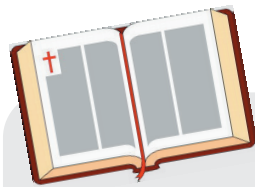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 전도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친구 소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주일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청년 때의 신앙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신앙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것 같은 제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시댁과의 갈등과 더불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됐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처 난 마음을 위로받으며 시댁 식구들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친정, 시댁 식구들과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난날의 무거운 짐들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에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교훈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 문제를 동족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지와 인간의 불순종을 뛰어넘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시 듣는 것 같습니다. 실제 비슷한 구절들을 점검해보면 직간접적으로 15구절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윤리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1절).

복음은 “삶을 스스로 변화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가능하게 된 근거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가 가능해졌고, 그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문에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풍성한 자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에 나타난 부요와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의 대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 선택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서는 ‘영적 예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역설’이란 서로 맞지 않는 상반되는 주장이 하나 되어 진리를 설명할 때를 말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 ‘산 제물’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비둘기, 송아지 등 어떤 제물이든지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고, 태워져야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야 하고, 모두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산 제물’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죽지 않고,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임해서 살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자로서는 ‘제물’이란 뜻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고 할 때는 ‘살아있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설은 “몸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것이 곧 영적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려지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 역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리 큰 충격이 아

영적 예배

로마서 12:1~8

“삶 전체가 영적 예배, 공동체 전체가 예배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선행과 나눔을 베푸는 것을 소홀하지 않는 예배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닌데, 당시 헬라인들에게 ‘몸(사르스)’이라는 단어는 ‘육체 덩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몸이라는 단어를 당시 사람들은 악하게 보았고, 또 정죄된 언어로 보았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플라톤 철학, 이원론 철학에 깊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몸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며, 영과 정신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을 몸으로부터 정신이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에 몸으로 드러지는데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은 충격입니다. 당시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몸은 무덤이다”(soma sema estin)입니다. 소마가 몸이고, 세마가 무덤입니다.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육체는 곧 무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충격적인 역설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도 역설이고,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역설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옛사람을 처리 하였고, 죽음으로 이끌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살아 있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순간, 행위 등 살아있는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예배 행위가 되었습니다. 예배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고,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삶에 대한 교훈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삼니까?”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몸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고, 영적 예배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죄는 행함으로 나타나기에 행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을 따라 우리 몸의 모든 삶의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 말과 행동이 과연 예배로 드러지는가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2절).

1절과 2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을 권고하고 있고, 2절은 정반대로 수동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님이 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이 세대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세계관, 가치관, 문화관, 인생관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관점, 영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외적 행위의 변화 이전에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고체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는 것입니다. 세계관과 관점과 생각과 가치 기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변화는 피상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이지만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건 능동으로 설명했는데, 왜 2절은 수동으로 설명했을까요? 변화는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도로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이래야겠다’고 결정했는데 예배드린 후에 ‘다르게 해야겠다’고 결정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까? QT 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QT를 마치고 나서 결정이 바뀐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드리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를 받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변화, 이 세상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13면에 계속>**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길, 진리, 생명

◆ 12월 12일 월요일

어떻게 절대선이 존재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5~51

이재훈 목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의 말은 세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나사렛’ 지역에 대한 편견과 멸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경멸했습니다. 둘째, 나다나엘은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는데, 빌립

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이 율법 지식이 있다는 것을 빌립이 알기 때문에 덧붙인 것입니다. 셋째, 나다나엘의 회의론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 부딪히는 것이 ‘회의(懷疑)’입니다. ‘과연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존재하겠는가, 그제 나사렛에서 나오겠는가?’라는 회의입니다. 나다나엘의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론을 대표합니다. 교회에 던지는 냉소적인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어떻게 절대선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헬라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절대적이고, 선한 질서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의 일부가 선하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바로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을 대신 희생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에 대한 징벌의 대가를 치르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끝까지 그 선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선은 반드시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는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긴 분입니다. 십자가는 선이 악을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악을 심판하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신하십시오.

◆ 12월 13일 화요일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요한복음 3:1~16

이재훈 목사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본향,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왔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

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기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희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진리와 생명으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가 길이라고 여겼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와 맺어지지만,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집니다.

본문 11~15절을 보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역사 속에서 증언하셨습니다.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니가 땅에 속한 언어와 땅의 역사로 주셨습니다.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증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대한 증언이고, 그분의 증언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든 청동 뱀을 본 사람이 살아났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또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를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찾아왔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휩쓸립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다시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4일 수요일

어떻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4:1~14

이재훈 목사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 여인과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갈망과 목마름을 해결해줄 대상이 존재합니다. 여인은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변화를 줌으로써 갈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갈망이 문제가 아니라 갈망의 대상과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

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렘 2:13).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 대신 채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든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인의 목마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에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요 4:10b).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온 분”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생수”라고 하였고, “그 생수를 주는 분”이라고 하였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과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님이 주는 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마름은 밖에서 안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그 물은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 오라”(요 4:16)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가장 불편한 단어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꺼내고 싶지 않고, 지우고 싶은 바로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두려움, 상처, 아픔을 씻어주시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목마름, 갈망, 결핍, 갈등 등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겨 내려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그 원인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허락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 12월 15일 목요일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 9:1~11

이재훈 목사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방향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더 많이 길을 잃고 방향합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라며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교훈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요 9:2)라고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해서 이 고난을 받게 된 걸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습니다. 날 때부터 생긴 장애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이전의 삶이 있다는 이교적인 세계관이 그들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도 순환론적인 세계관(윤회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카르마(Karma, 업보)’입니다. 카르마는 지금의 모든 문제가 과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실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요 9:3).

미래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하시실 일을 드러내는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말고 미래에서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카리스마(Karisma,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선물입니다. 현재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라는 시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실 일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먼 사람의 눈에 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치료방법이 이상합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살고자 한다면 죽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9장에 두 부류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앞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요 9:39~41). 스스로 세상을 다 안다고 여기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십시오.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마십시오. 미래에서 찾으십시오. 고난을 선물이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 12월 16일 금요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20:24~29

이재훈 목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일지라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불신으로 떨어지느냐 확신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 짓습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진짜 구원받았네’라며 놀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흔들리며 의심의 안개가 걷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구원받지 못한 분에게는 그 질문조차 없습니다.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니고, 불신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역사상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벤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글을 쓰다가 도리어 확신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불신이 가득한 나쁜 사람처럼 취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

복음 11장을 보면 도마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는 말씀이 나오도록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냐”고 질문한 제자가 도마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신앙이 확신에 이르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마의 마음에 일어나는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확신으로 향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심은 불신과 확신 사이에 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가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정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질문이 일어나는 정직하고 솔직한 의문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을 내 질문처럼 던져보아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의심을 증거를 놓고 살펴야 합니다. 정직한 질문들은 반드시 증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증거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셋째, 그 증거를 찾았다면 모험해야 합니다. 믿음이 적용되어서 모험이 시작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모험해야 체험하

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정직해야 하고, 증거를 살펴야 하고, 모험해야 합니다. 도마의 의심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의심을 해결하고 믿음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도마를 찾아가셔서 손가락으로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의심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도마처럼 의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고 확신하기를 원할 때 표적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되다”고 하셨습니다. 증거만 의지하는 믿음에서 믿음이 증거가 되는 확신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의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2 선교사 간증집 <보물찾기>

숨겨진 보물과 하나님의 눈물

두 청년의 고백 그리고 어느 선교사의 간증

2000선교본부에서 '2022 선교사 간증집 <보물찾기>'를 발간했다. <보물찾기>에는 전 세계에서 이주민과 난민들을 섬기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아름답고 눈물겨운 간증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 2022 선교사 간증집 <보물찾기>는 지난 12월 13일(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성도들에게 배포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그 귀한 간증 중에서 레바논의 어느 선교사 간증을 소개한다. 아쉬레, 마리 선교사(레바논 난민지역)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레바논의 난민촌에는 하나님의 보물이 가득하다”면서 “그 보석을 발견한 기쁨을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했다.

/ 편집자 주



레바논 난민촌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시리아 난민들이 있다.



에게 사랑을 보여 주었던 자매였습니다. 저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곳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큰 슬픔과 사건을 겪은 상황에서도 이 땅을 밟게 하시는 것입니까?’

연약한 선교사는 깨닫지 못했지만,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예수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앞에 쏟았던 여인처럼, 자신의 깨진 마음을 예수님 앞에 쏟아 놓으며 레바논 땅을 밟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선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여전히 고민과 의문이 많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아웃리치 온 두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땅의 보물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의 눈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레바논 땅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난민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저도 보석을 발견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정말 희생과 헌신이 전부 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값진 것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레바논 땅을 밟았던 모든 이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밟기 위해 스스로 애쓰고 찾아낸 보물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자 전부이기를 기대합니다.



2022 선교사 간증집 <보물찾기>

저는 이제 10개월 차에 접어든 풋내기 선교사입니다. 아직 언어도 부족하고 만남의 경험도, 사역의 경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들려주고 싶은 선교 현장 이야기가 있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레바논의 베카지역은 시리아 난민이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가장 덥고, 겨울에는 가장 추운 데다가 배고픔과 외로움이 가득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살아가는 난민들의 삶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곳은 정말 예수님의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삶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마음처럼 낮아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막혀 있던 아웃리치 발걸음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웃리치 팀을 통해서 이 땅에 아픔과 슬픔, 외로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값진 보물이 감춰져 있는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보물을 드린 청년들

일주일 동안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날, 아웃리치팀과 선교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웃리치팀이 레바논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왔는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밟은 것만으로도 그들이 난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번 레바논 아웃리치를 오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비싼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컴퓨터, 시계, 외장형 하드를 팔았다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왁 쏟아졌습니다. 어릴 때 부르던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땅속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돌아가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냉장고를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겠다고 말하던 찬양 가사가 실제로 이뤄지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

그 청년은 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비싼 물건들을 팔았을까요? 레바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처럼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마음을 채워 주셨고,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고 한국 땅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마지막 학기를 마치면 레바논 단기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겨워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값비싼 보물,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셨고, 결국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영적 여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아웃리치팀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청년이 왔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웃리치의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 나눔 시간에 그동안 아웃리치팀을 겸손하게 섬긴 청년 팀장이 자신의 사연을 나눴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웃리치 오기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줌(Zoom)으로 열린 아웃리치 사전 준비 모임에 참석을 못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친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웃리치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비행기 타기 몇 시간 전까지도 계속 고민하며 짐을 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레바논 땅을 밟았고, 아웃리치 팀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녀가 사연을 말하기 전까지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웃리치 기간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난민들과 아이들

크리스마스에 함께하면 좋을 명화와 음악

보티첼리와 만테냐의 ‘동방박사의 경배’, ‘오 거룩한 밤’



최정주 권사
(이수공동체,
아트앤뮤직큐레이터)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귓가에 ‘오 거룩한 밤(O Holy Night)’ 노래 소리가 잔잔히 들려온다. 이 시기에 알맞은 그림 두 점을 감상하면서 ‘오 거룩한 밤’ 노래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그림과 음악으로 구성된 예술프로그램을 강연하는 아트앤뮤직 큐레이터이다. 유명 화가, 세계의 미술관과 박물관의 소장 미술품을 중심으로 강연하고 있다. 대개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걸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서양 화가들의 그림을 살펴볼까요?”라고 강연을 시작한다.

‘수태고지’, ‘목동들의 경배’, ‘동방박사의 경배’ 까지 다빈치, 렘브란트, 루벤스, 카라바조 등 수많은 화가들의 작품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고르고 골라 강연을 한다. 음악은 바흐의 ‘마그니피카트’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등을 소개한다. 관객들은 바흐의 곡들은 조금 낯설게 느끼는데, 귀에 익은 찬송가 ‘천사 찬송하기’를 (126장)이 멘델스존의 곡이고, ‘오 거룩한 밤’이 아돌프 아당처럼 유명 작곡가의 곡이라는 것을 알고 반가워하기도 한다.

보티첼리의 ‘동방박사의 경배’

오늘 소개할 첫 번째 그림은 피렌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 (1475년)이다. 보티첼리는 우피치 미술관(피렌체)에서 두 개의 큰 방에 유명한 작품 ‘비너스의 탄생’과 ‘프리마베라’를 비롯해 작품을 가득 전시하고 있을 정도로 피렌체 최고의 화가 중 한 사람이다. 이 대단한 화가 보티첼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의 놀라운 점은 피렌체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이다. 베들레헴에 오셨어야 하는 예수님이 15세기 이탈리아에 오신 것이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마 2:9)는 성경 말씀이 무색하다. 무너진 허름한 건축물 잔해 안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보인다.

성경에는 그 숫자가 나오지 않는 세 명의 동방박사는 피렌체 출신 사람들이다. 그림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정 가운데 빨간 망토를 걸친 사람과 그 사람과 마주 보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다. 보티첼리가 그린 이 세 명의 동방박사는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코시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 (1475년, 우피치미술관, 위), 안드레아 만테냐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 (1495~1500년, 플레티뮤지엄, 아래).

모와 그의 아들 피에로와 조반니이다.

피렌체 졸부 출신인 ‘라마’라는 사람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헌납할 그림을 보티첼리에게 의뢰했다. 보티첼리는 예수님 탄생 배경을 15세기 피렌체에 맞췄고,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으로 그렸다. 메디치 가문과 어깨를 견줄만한 신분이 되지 않는 의뢰자 라마를 그림 속 메디치 가문 안에 넣어 줌으로써 그의 지위를 격상시켜주었다. 맨 오른쪽 중간에 서서 화면 앞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라마다. 재미있는 것은 보티첼리도 자신의 모습을 바로 오른쪽 맨 앞에 넣음으로써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림 속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앞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니라”(마 2:11)는 말씀에 맞춰 동방박사들 모두 귀한 선물을 들고 있다.

보티첼리의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고 있노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단지 2천 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시대 내게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15세기 피렌체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21세기의 나

제, 나의 방에 곧바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 우리를 손수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고 경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는 계속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임재란 ‘얼굴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수기>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취 주실 것을 그렇게 구하였는지 모른다.

“여호와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민 6:26).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숨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시 139:7).

그림 속 예수님은 얼굴을 동방박사를 향해 드셨다. 그림을 바라보고 묵상할수록 지금 이 시대 이 땅 낮은 곳, 쪽방촌 구석방에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만테냐의 ‘동방박사의 경배’

다음 그림은 이탈리아 파도바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화가 안드레아 만테냐의 ‘동방박사의 경배’ (1495~1500년)다. 동방박사의 터번과 들고 있는 선물들의 화려함을 관찰할 때 이 그림

역시 2천 년 전의 베들레헴이 배경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동방박사들은 실제 왕 헤롯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마 2:2)고 묻고 다니면서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들었다(마 2:3).

보티첼리의 작품과는 대조적으로 이 그림은 그 장소와 배경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화폭을 인물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 오른쪽의 동방박사들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세 명의 동방박사는 노년, 중년, 소년의 모습이면서 백인, 황인, 흑인이다. 이 동방박사들이 노아의 아들 함, 셈, 야벳의 후손 곧 모든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만테냐는 아마도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동방박사를 세 인물로 표현했던 것 아닐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인 셈이다. 태어나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부터 통치자가 나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분(마 2:6)이다. 그분을 만나는 것을 시기하는 헤롯과 같은 세력은 언제 어디에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그분을 만나고, 경배해야 한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 요셉의 머리에는 후광이 빛나고 있다. 후광의 성스러움과 동방박사들과 예수님의 표정을 잘 보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동방박사들의 손에 들린 황금은 예수님의 신성 또는 성결, 유향은 삶의 향기, 몰약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예표하는 것일 수 있다.

예수님(Christ)과 예배(Mass)를 합친 크리스마스(Christmas)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마 2:2)라고만 물었는데, 헤롯은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마 2:4)고 되묻는다. 세상의 왕 헤롯은 천한 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고요한 이 밤, 이 땅에 오셨다.

두 그림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면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오 거룩한 밤(O Holy Night)’을 감상하면 좋을 것 같다. 이 곡은 프랑스 한 교구 신부의 부탁을 받은 카푸 드 로키모가 시를 짓고, 그의 친구인 아돌프 샤를 아당에게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아당이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인도되어 매우 짧은 시간에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명한 낭만 발레의 최고봉인 ‘지젤’의 음악을 작곡한 아당의 유일한 성가곡이다. ‘오 거룩한 밤’은 작곡된 지 3주 만에 크리스마스 자정 미사에 사용되었고, 미국까지 전파되어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연주되고 불리는 곡이 되었다.

“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원을 찾았네♪”

예수님은 2천 년 전 베들레헴이 아닌 지금 이 밤 우리 곁에서 구세주로 태어나셨다.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의 본캐는 무엇입니까?”

“‘부캐’(또 다른 캐릭터)를 가진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능력과 부캐를 가진 연예인들을 보면서 나의 부캐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부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즘 ‘부캐’(Sub Character)라는 말이 유행이다. 자신의 원 정체성인 본캐(Main Character)와 별도로 ‘부정체성’을 일컫는 말이다. 온라인 게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낮에는 직장인, 야간에는 예술인 등 부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본캐는 무엇입니까?”라고 말이다. 열심히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본캐일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정체성을 찾는데 60여 년 걸렸다. 장로로 세워져서가 아니라 깊은 구렁텅이 같은 곳에 빠진 것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았다. 하나님은 부캐로 살아가는 세상 영역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자가 본캐임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요셉의 본캐는 굶주림으로 멸족당할 야곱과 형제 자녀들을 400년 동안 잘 보호하고 번성하게 해서 언약한 이스라엘을 만들도록 세워진 사명자다. 그의 부캐는 종이요,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었다. 요셉은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 애굽의 총리라는 본캐의 형통도 누릴 수 있었다.

예수님처럼 본캐와 부캐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이 또 계실까? 그분은 본래 왕이시나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 가장 누추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무시 받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예수님은 부캐로서의 소명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행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치유와 말씀으로 33년 동안 전심을 다해 전했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소임을 다하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사랑, 화해, 용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분 덕분에

죄 사람과 함께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다.

나는 청년들이 본캐를 찾기를 바란다. 부캐로 주신 달란트, 세상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부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 받도록 본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를 바란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십의 1이 아니라 5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바라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부터 귀하고 구별되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결단과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선한 팔을 뻗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의 간구가 현실이 될 것이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것 이상으로 세상이 선교자인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에 동승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천 청년의 정체성이자 본캐이다. 나처럼 늦은 나이에 깨닫지 말고 하루라도

속히 깨달으면 평생을 축복과 형통 속에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고난을 애써 잊으려고만 하고, 기도제목이 없는 것이 요즘 청년세대인 것 같다. 힘든 현 상황을 외면하고, 행복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행복고문’에 떠밀리는 청년들이 안타깝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진리다.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을 만끽해야 한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사랑, 용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 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누리고 있다. 그 자유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오범규 장로
(여호수아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간혹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가 있다. 업그레이드는 사용자가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때가 있고, 프로그램 공급자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사용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 오래된 버전은 버리고,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급자는 여러 이유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유한다. 만일 계속 방치하면 결국 프로그램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서 치료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공급자는 구버전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용자에게 개선사항을 요청받고, 그 요청사항을 수정해서 제공하려고 업그레이드를 시도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보안의 취약성이 드러나면 프로그램 공급자는 업그레이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컴퓨터 사용자에게 강하게 권고한다. 구버전 사용이 불편하거나 구동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수정해서 업그레이드를 권하는 때에는 시급성은 덜 하지만, 보안상 취약성이 드러나거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공격 등이 있을 때는 시급성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다. 보안상의 이유가 아닌 편의상의 이유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버전이 훨씬 편하고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새로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이 몹시 불편하고 사용하기 어려워 다시 다운그레이드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새롭고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업그레이드했는데 좋은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더 번거롭게 하는 버전이라면 사용자들은 왜 굳이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는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 이 즈음 많은 사람이 다운그레이드를 다시 실행한다. 물론 한시적이지만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훨씬 손에 익어서 사용하기 편하다고 느끼는 사용자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결국은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혼생활에도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가 적절하게 사용된다. 부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관계에 무엇인지 모를 문제들이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된다. 본능적으로 ‘우리 관계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이때 부부들은 부부관계를 업그레이드해 줄 무엇인가를 찾는다. 부부상담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부상담을 경험하면 틀림없이 업그레이드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부부상담은 아니더라도 부부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나 세미나 등에 참여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부부는 발견하고 변화를 다짐한다. 말 그대로 부부가 업그레이드되는 기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부부는 자신에게도 다짐하고, 배우자에게도 굳은 다짐을 한다. “변화하겠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겠다”,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자녀들에게도 다정다감한 아빠가 되겠다”, “더욱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엄마가 되겠다” 등을 다짐한다. 이 다짐들은 새롭게 출시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과 같은 느낌이

다. 하지만 자신들이 했던 수많은 다짐과 헌신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음을 곧 깨닫게 된다. 자신과 부부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작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 즈음 부부 중 누군가는 “너무 많은 다짐을 약속했군”이라고 하면서 구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를 고민하기도 한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부부관계의 극히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부담을 내려놓고 다운그레이드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행동의 패턴까지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 ‘배우자를 향한 높은 기대’에 대해서는 다운그레이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었다면 때로는 다운그레이드하면서 미래에 업그레이드될 모습을 기대해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부부상담이나 부부세미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뿐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상담을 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부부세미나 할 때 뿐이고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간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세밀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의 좌절에 대한 절망감과 배신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다. 이전과 다르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마음에서 실망과 분노가 일어난다. 자신의 변화가 더딘 모습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그

나마 다행이지만, 배우자에게만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다운그레이드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많은 부부가 동감하는 것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과정도 필요하고 수많은 실패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격려도 필요하다. 잠시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다운그레이드한다면 부부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운그레이드된 상태라도 부부의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공급자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으면 언젠가는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혹은 개선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잠시 내려놓는 다운그레이드를 하더라도 변화와 성장의 끈을 놓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는 반드시 업그레이드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다소 높은 기대를 잠시 다운그레이드하더라도 반드시 결혼생활은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마5:7).

나눔: 배우자에 대한 변화의 기대가 좌절된 적이 있습니까? 높은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배우자를 수용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섬교회 나들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흔적과 열정을 품다

어청도교회의 탄생 그리고 멈추지 않는 비전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나우리트릿 대표)

조선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1주년 추도식에서 그의 동료 존슨 선교사가 쓴 추도사 마지막 문구다. 평소 아펜젤러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내용이었고, 그 고백대로 삶을 증명했기에 이 문구가 주는 힘이 매우 강력하다.

1902년 6월 11일 밤 11시,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선박 두 대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망망대해에서 일어난 충돌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해무나 해상조건의 악화가 아니었다. 해상충돌 예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승무원의 해이와 근무 태만이 낳은 분명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을 줬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성경번역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동역자이자 배재학당 한문 교사로 섬기던 조성규와 함께 배를 탔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자신의 안전을 살피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사람

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다. 그는 이 땅에서 작은 무덤 하나 만들지 못하고 푸르른 바닷속에 여전히 잠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청도 앞바다가 그의 무덤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났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직일과 연결해서 방문하려고 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바쁜 일정으로 미루다가 겨우 어청도를 찾았다. 어청도는 사람들의 방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하루 딱 한 편의 배편이 있어서 1박 일정을 계획하지 않고는 찾기가 힘들다. 게다가 2시간 30분이란 긴 배 시간이 보통의 마음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여행길이다.

어청도는 물 맑기가 거울 같다고 해서 그리 이름 붙여졌다. 군산에서 약 72km 떨어진 외딴섬이다. 중국 산둥반도와 약 300km 정도 거리로 중국의 개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다. 소령도와 가거도처럼 우리나라 영해기선 기점 중 하나인 섬이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섬, 웬만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여행객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있다.

1912년부터 바다를 비추는 어청도 등대가 있다. 백색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로 조형미를 살리기 위해 등탑 상부를 전통 한옥의 서까래 형상으로 재구성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등대다. 그 등대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하늘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풍광을 선물한다. 또 해안길을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목재로 조성해 놓은 해안산책길과 섬의 높

은 곳에 자리 잡은 팔각정에서 몇 개의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며 어청도의 생태를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트레킹코스까지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없는 매력적인 곳이 많다.

어청도교회는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예수 만나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얻은 ‘한춘분 씨’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어청도에도 복음의 향기가 흠날렸다. 1944년 첫 번째 예배당이 건립되었고, 1998년 지금의 예배당이 세 번째로 세워졌다. 그동안 교회가 분리되는(1992년)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2006년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 오늘까지 어청도의 유일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

어청도는 여느 섬마을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인구 유입이 줄면서 자연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다. 그렇다고 교회가 움츠러들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유인호 담임목사는 어르신들을 섬기며 따뜻한 목회를 하고 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어청도만의 독특한 자연생태 자원들과 어청도가 품은 신앙적 유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어청도 팔각정 옆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직 12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표지석이 있다. 꼭 한번 방문하면 좋겠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거목(巨木)으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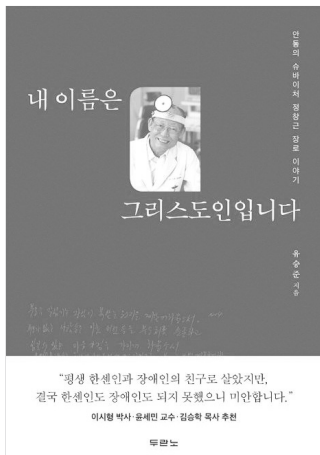


어청도교회(위)와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장소 표지석(아래).

뚝 서 있고, 자신의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삶을 보여준 아펜젤러 선교사를 기억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다. 덩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마저 편안해진다. 신앙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질수록 섬교회의 역사가 더 오랫동안 살아 숨 쉴 것이고, 교회와 함께 섬마을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두란노 신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승준 저 | 두란노 | 18,000원

‘안동의 슈바이처’라 불리던 정창근 원장은 평생을 한센인과 장애인들을 돌보며 그들의 친구로 살았다. 의사로서의 명성과 부는 정창근 원장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환자들의 상처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훨씬 중요했다. 정창근 원장이 아침 8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가 보통 150명 내외였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단 한 번도 일을 대충한 적이 없었다.

정창근 원장은 매주 금요일이면 한센인들을 만나러 가려고 진료도구와 약을 챙겨 병원을 나섰다. 묵묵히 사랑을 실천했던 정창근 원장의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이들은 한센인들이었다. 그의 장례를 마치고 영구차가 안동성좌원을 한 바퀴 돌아 나올 때 연로한 한센인들이 나와서 통곡했다. 정창근 원장이 돌봤던 한센인 중 한 명은 “이 세상에 다시는 있기 힘든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정창근 원장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빛과 소금의 삶을 실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 정창근 원장의 삶을 옮겨 적은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읽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기독 OTT ‘풍당’ 추천 콘텐츠

가장 가깝지만, 상처 주고받는 가족 이야기



‘가족이 뭐길래’

가만보면 원수가 따로 없다. 가족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얄밟게 내 속을 후벼 파는 사람 대부분 가족이다. 가족에서 받은 상처는 다시 가족에게 향한다. 결국 가장 아껴야 할 사이인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가족이 뭐길래’에서 가장 가깝지만,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 이야기를 다룬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다.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가족이 뭐길래’에서는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채경선 교수가 10회에 걸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강의한다. 채경선 교수는 가족을 ‘가족 구성원이 모여서 만드는 유기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문제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한다.

“게임 하는 아이와 잔소리 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아이는 엄마가 잔소리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엄마는 아이가 게임을 해서 잔소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의 문제는 가족이 가진 문제를 드러내는 한 가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가족 한 명의 위기는 가족 전체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한 몸이 되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강공동체 맞춤형도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이웃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강공동체 맞춤형도집회 ‘행복으로의 동행’

한강공동체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웃과 함께 보냈다. 한강공동체가 지난 12월 10일(토)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행복으로의 동행’을 주제로 맞춤형도집회를 개최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 22명, 공동체 여류 아웃리치에서 만난 소풍령마을(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주민 16명을 초대했다. 22명이 결신하는 열매도 맺혔다.

한강공동체 ‘행복으로의 동행’

맞춤도집회는 가수 김영우(스윗소로우)의 사회, ‘울동으로 마음열기’, 라파엘(가야금찬양단) 공연, 지노박 선교사 노래, 샌드아트 영상, 김진국 집사 간증, 이기훈 목사 설교, 세리모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기훈 목사는 ‘세 가지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메시지는 전도대상자들에게 “세상 어디에도 없고, 이 유나 조건이 붙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은정 성도(한강공동체)는 “아버지가 이 자리에 함께 있고,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해주셔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고, 김인숙 씨(소풍령마을)는 “한강공동체 덕분에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구경도 잘했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갈렙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강의도 병행한다. 갈렙선교학교에서는 ‘선교사 이해와 돌봄’, ‘갈렙의 변화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1월 8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7708-7700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주고, 한 주 동안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김포M센터 몽골어예배 개척

매주 주일 오후 6시 김포M센터에서

김포M센터가 몽골어예배를 개척했다. 지난 12월 11일(일) 오후 6시 김포M센터에서 첫 번째 몽골어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몽골인 이주민 10여 명과 최영석, 김명숙 선교사 등이 참석했다.

김명숙 선교사는 “CMN 토브팀의

의료봉사, 동작공동체, 양재 순장스쿨, 양천공동체 마리아다락방, 서빙고, 안산, 평택 몽골어예배와 함께 한 전도집회 등이 김포M센터 몽골어예배를 만들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농산물 판매

떡국떡, 햅쌀, 사과, 서리태, 감말랭이, 팔 등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사회선교부)에서 농산물(떡국떡, 햅쌀, 서리태, 감말랭이, 팔, 참기름, 들기름)을 판매한다. 농산물 판매 행사는 도농행사의 일환이다. 농어촌교회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성도들에게 시중보다 싸게 판매

한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12월 18일까지 온라인 접수(<https://naver.me/GcWWP7zi>), 12월 24일과 25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지하 1층에서 배포, 현장 주문, 판매를 한다. 문의: 02-3215-3434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중보기도학교’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중보기도학교’ (바로수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박준광 목사(신동탄지구촌교회 담임)가 지구촌교회에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경험하고 배운 중보기도의 노하우와 은혜를 나눈다. ‘성경적인 중보기도의

이해’, ‘중보기도의 놀라운 특권’,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중보기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9만 원. 강의는 결제일로부터 60일 동안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456

(주)두비산업 온누리복지재단에 ‘두비장학금’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대학생 3명에게 전달

(주) 두비산업(대표 박현규 장로)에서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온누리복지재단 산하) 대학생 3명에게 두비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두비장학금은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거나 퇴소한 대

학생 3명(노민혁, 김형준, 윤지홍)에게 전달했다.

두비장학금은 (주)두비산업 대표 박현규 장로가 2021년 4월 20일 온누



리복지재단과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조성한 장학금이다.

/ 정현주 기자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간담회

2023년 기도캠페인 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지난달 30일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간담회가 서빙고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에서 진행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사역 보고와 참여 소감, 내년 열릴 기도 캠페인을 위한 중보 기도 등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가한 한 성도는 “온누리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면서 “낙태 위기에 처한 아기가 우리의 기도로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2023년 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이어진다.

/ 정현주 기자

차세대, 고3 세례 및 입교식

12월 18일과 25일 대학부 세례 및 입교식

차세대 파워웨이브와 대학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세례 및 입교식’을 개최한다. 12월 18일과 25일 파워웨이브 예배에서 진행된다. 1부 12월 18일 오전 9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선교관 5층), 2부 18일 오전 9시 서빙고 두란

노홀(선교관 지하 1층), 3부 25일 오전 9시 믿음홀(신동아 2층), 4부 12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서빙고 경찬홀(선교관 5층)에서 열린다. 세례 및 입교식은 Pole2대학부와 하늘대학부 목회자들이 집례한다. 캠퍼스는 부서별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12월 P.P 기도회

12월 19일 오전 10시 서빙고 선교관 201호

두란노어머니학교 12월 P.P(Power 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12월 19일(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01호에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방송한다. 가

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4

12월 세례자

■서빙고 유아

김민준 201109
김승현 이정아
김예은 220401
김승현 이정아
박서호 220610
박진훈 배미현
박이선 210520
박옥덕 한성희
박하성 210309
박찬혁 정아련
조예준 210116
조규상 신유진
최해나 220107
최재섭 홍지은

한서윤 210914
한창학 고지영
한시우 200326
한창학 고지영
홍수인 200207
홍성철 황유정

■양재

김재광 891025
박선영 790722
변영화 700729
홍윤재 700825
입교
김미선 920912
유아
권하율 201017

권창수 안혜성
김도하 200101
김진형 이은아
김리안 210111
김완식 조소영
모주연 210224
모제영 정다희
문석현 220507
문광민 박나현
문소이 210720
문경복 박귀옥
박이담 200715
박종민 강지화
박이은 220403
박진호 최지원
백도현 220729

백상윤 최지선
엄태리 201215
엄성용 유현정
이윤슬 210102
이상현 이정화
이은수 181206
이은식 조수진
이은진 210414
이은식 조수진
이주연 200501
이전도 권휘로
최이현 210325
최호상 류혜석

통일선교학교 수료 간증



/ 정광진 집사(양재A공동체)

통일준비와 나의 역할

나는 1969년생이다. 나의 아버지는 6.25 참전 소년병이셨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과 술 드시면 자주 하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접했다. 어릴 적에는 주변에서 쉽게 ‘빠라’를 찾아볼 수 있었고, 등화관제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난다. 북한군을 때려잡는 ‘똥이장군’이라는 만화영화를 보며 자랐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군인들 처럼 ‘교련복’을 입고 수업시간에 군사훈련을 받았다. 대학생 때에는 방학 중에 군부대에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았다. 군 생활은 강원도 양구에서 철책 근무를 했고,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는 예비군으로 동원되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북한은 같은 민족이자 동포라는 생각보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30대가 될 때까지 그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늘 전쟁의 불안 속에 살고 있으며, 북한은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온누리교회에 와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대상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내가 통일선교학교를 수강하게 된 계기가 찾아왔다. 순예배 중에 우리 순

어느 가정의 아버님이 평양에 있는 대학교 총장으로 북한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이상하고 궁금했다. ‘서로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남한사람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제까지 내가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교회 게시판에 붙어있는 통일선교학교 게시물을 보고 수강하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남한과 북한이 갈등과 증오를 해결하고,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그 시작은 상대방도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긍휼히 여기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으며,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좋은 교육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도 늘어서 잘못된 교육으로 북한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부분을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을 위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해 보려한다.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임근삼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순장으로서는 나의 다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은 내게도 도전이었다. 순장으로서는 섬김의 자리에 선 내게 하시는 것 같은 질문에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할 뿐이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똑같은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한 몸도 어찌하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 중간쯤에 서서 흔들리는 내게 양을 맡기시다니. 내가 어찌 양을 맡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순장 역할을 시작했다. 하나님은 10주 동안 이어진 순장학교에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주셨다.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다. 특히 조원들과 리더들의 깊은 묵상에서 나온 큐티 나눔을 통해서 진솔하고 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온누리교회의 역사와 묵회 철학을 배우고, 이해하는 강

의를 들으면서 방주에 탄 순원들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 자체에서 기쁨이 느껴졌다. 순장학교를 수료하는 동안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았다. 새삼 순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졌다. 올해 처음 순장을 맡은 내게 성실하고 착한 순원들의 이해와 아량은 정말 큰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귀한 순원들을 보내주셨다. 순장학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였다. 조원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여태 마음에 담고 있던 가시를 뽑아냈다. 용서의 마음도 생겼고, 불의한 사람들의 성공을 보며 억울했던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종들에게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시고, 함께 배우며 깨우치는 기회를 주신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되, 먼저 눈물로 순원들의 영혼을 돌보고,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는 순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김을 다할 것이다.

안산M센터 이주민 선교학교 수료 간증



/ 박종매 성도(부천온누리교회)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작년에 나의 직장으로 업무를 보러 온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다. 그는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기에 규정상 요청한 업무를 거절하고 돌아가게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주 그 사람이 생각났다. 올해 파키스탄에서 온 분이 방문했는데 절차상 안 되는 업무를 내가 책임지고 해 준 일이 있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쁜 마음을 주셨고, 이주민에게 막연한 관심을 품게 하셨다. 그즈음 이주민 선교학교를 신청했다. 매주 강의를 듣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나는 정말 소박하게 이주민을 조금 더 알고 싶은 단순한 동기로 신청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의 소외된 이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 또 추천도서 〈말은 안 통해도 선교는 통한다〉를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 나에게 남다른 사명감과 재능, 그들을 향한 비전은 아직 없다. 하지만 짧은 시간 이주민들을 향한 나의 시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셨다.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직장에서의 변화’다. 안내하는 직원에게 “혹시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업무를 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근에는 길을 묻는 세 명의 외국인들에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앞까지 직접 안내했다. 또 다른 하나는 ‘엔젤트리 참여’다. 망설이고 있었는데 새벽기도회에 나갔다가 엔젤트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사연을 뽑았다. 난민으로 거주하는 청년의 사연이었다. 그 사연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연 같았다.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셨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많이 교정되었다. 더 따뜻한 마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을 기회가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온누리M센터
<https://onnurimcenter.org/>

〈니고데모 순교자가 되다〉 독후감



/ 권영빈 다락방장(남양주온누리교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이름난 율법학자였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던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으면 예수님을 찾아뵈었을까? 그가 신분 노출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 이 대화가 끝나고 성경에 니고데모의 언급이 없다. 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시고 장례를 지낼 때 잠깐 등장한다. 예수님과 그의 대화를 통해 니고데모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로 만난 안문훈 성도님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쓴 소설 〈니고데모 순교자가 되다〉가 출판되었다고 연락하셨다. 안문훈 성도님은 예술가로서 그림과 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작가다. 〈니고데모 순교자가 되다〉를 집어 들었는데 소설이라 그런지 책장이 잘 넘어갔다. 이 책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이후 삶을 놀라운 상상력으로 풀어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과 ‘성령으로 난 사람의 자유’를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가슴에 떨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큰 파문을 일으켰고,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정죄 받은 사형수를 장례지내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니고데모의 독백과 등장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간다. 〈니고데모 순교자가 되다〉에서 니고데모는 사형수 장례를 지낸 일로 미움을 받아 부인과 함께 타지로 도피한다. 그리고 순교자가 된다.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스토리가 아니다. 말씀의 씨앗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열매 맺는가이다. 이 책은 구원의 깊은 확신을 구하는 이들과 지식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출판사 대표는 원고를 받아들고 밤을 새워가며 단숨에 읽어냈다고 한다. 그는 신학 공부를 한 분이었고, 이 책의 부록으로 들어간 신학적 에세이도 공감해서 출판을 결정했다고 한다. 나 역시 작가가 풀어나가는 정연한 구원론에 감동했다. 하나님이 한 화가에게 영감을 주셔서 평생 미술에 헌신하게 하셨는데, 그림뿐 아니라 문학으로 지경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풍성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찬양의 기쁨 그리고 은혜

남윤창 장로
(장로합창단 지휘자)

2012년 어느 날, 평소 인연이 있던 홍정표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장로합창단을 창단한다면서 지휘자로 함께 섬겨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다. 나와 장로합창단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됐다. 당시 나는 집사였는데 장로님들 모임에 간다는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고 은혜만 남았다. 장로합창단 단원들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로합창단의 몇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 그중 하나가 누구도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로는 의견이 나뉘기도 하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반대했던 단원들도 처음부터 찬성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또 다른 자랑거리는 서로를 형제처럼 돌본다는 점이다. 한번은 한 장로님이 큰 병을 앓으셨다. 한동안 거동을 못 해서 가게에도 큰 부담이 있었는데 장로합창단 단원들이 심시 일반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냈다. 그때 무려 1천3백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 한 번에 모였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보살피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장로합창단원 모두가 천국 소망으로 산다는 점이다. 창단한 지 10년이 지났고, 장로님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 종종 단원들을 천국으로 환송해 드린다. 단원들을 천국으로 환송할 때 장로합창단의 믿음이 빛을 발한다.故 전태경 장로님은 수의로 장로합창단 단복을 입으셨다. 전태경 장로님 천국환송예배에서 장로합창단은 천국에서 만날 그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다짐했다. 바로 이 삶과 신앙이 장로합창단의 찬양에 묻어 있다.

장로합창단 창단 10주년을 맞아 열린 ‘2022 온누리 찬양 Festival’도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다. 장로합창단 단원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합창단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 했다. 장로합창단부터 코로나19 기간에 모이지 못하면서 꽤 위축됐었기 때문이다. 다른 합창단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지난 12월 3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 모인 합창단 모두가 찬양하는 기쁨을 만끽했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의 핸드벨 연주를 시작으로 9개 합창단이 하나 되어 부른 ‘행복’으로 순서가 마무리됐다. 모처럼 무대에 오른 합창단을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한 가족들과 그 꽃다발을 안고 즐거워하는 단원들을 보면서 준비가 쉽지는 않았지만 참 좋은 자리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가팀 모두 2022 온누리 찬양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부터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했다. ‘온누리선교재단합창단’에서는 믿음이 약한 직원들이 2022 온누리 찬양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 찬양 연습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 부천 ‘물맷돌합창단’에서는 10여 년 복음 전하려고 기도한 전도대상자에게 ‘물맷돌합창단’의 찬양 영상을 보낸다는 게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 영상을 전달했다가 전도대상자가 본의 아니게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내년에도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이 마음껏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더 나아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기도한다.

쉽, 그 소중함에 대하여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제주에서 맞는 주일이였다. 쉬는 것이 일과지만 매일 나가 돌아다니는 것도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다. 교회 다녀와서 만사 제쳐놓고 쉬기로 했다. 새벽부터 일어난 친구가 30여 분 넘게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늘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친구의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 평소에는 요양원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있다. 무연고 노인을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처럼 돌보기도 했다. 제주에 정양하러 와있는 중에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간식해 먹이며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이다.

내 몸 아플 때는 남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부담이다. 그 부담을 아는지 온전히 혼자만의 휴식을 누리도록 배려해서 일 년씩이나 부인을 제주도로 정양 보내고 떨어져 사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친구 남편도 멋진 분이다. SNS 메신저로 다시 연애했듯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사는 친구 부부의 모습에서도 잔잔한 감동이 있다. 그 덕분에 고관절 수술을 받고 불편하던 다리가 훨씬 건강해진 친구를 보면 안심이 된다. 친구 남편에게 더 없이 감사하다.

교회 승합차를 타고 친구가 다니는 동흥교회로 향했다. 골목골목 다니며 성도들을 태우는 덕에 제주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덩으로 누렸다. 아담한 교회 분위기가 정겨웠다.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로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를 제목으로 해주신 설교에서도 은혜를 받았다. 유한한 인생이기에 주어진 시간을 삶의 진정 소중한 것들을 위해 귀하게 쓰며 살아야 하리라.

예배를 드리고는 다 같이 모여 앉아 점심식사 교제를 나눴다. 대형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스러움이 넘쳤다. 누군가 헌물한 새 옷도 서로 나눴다. 나도 몇 가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선물 받는 기쁨을 누렸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찌들었던 마음을 씻어내고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축복과 평안을 경험했다.

집 가까이 있는 목욕탕에서 느긋하게 피로를 풀었다. 제주도 여인네들의 수다에도 정겨움이 느껴졌다. 마음도 몸도 온전한 쉬으로 새 힘을 얻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째 되는 날 안식하며 쉬셨다. 쉬이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우선 멈춤이다. 한때 우리도 쉬를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허리 펴 새도 없이 열심히 일하셨다. 그 덕분에 젊은 세대들이 풍요를 누리고 산다. 세계 경제 대국 8-9위를 넘보는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격세지감인가?

오늘날은 쉬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다.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이기에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다. 때로 의미 없는 쉬이 몸과 정신을 망치게 한다. 마약이나 술 먹는 것을 쉬으로 아는 무익함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험담을 안주 삼아 스트레스 푸는 수다 모임도 피해야 한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는 진정한 쉬를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친구가 꿰어주는 따끈한 우영차 한 잔에 평화가 내려앉았다.

신앙에세이

정현석 목사
(고양은평공동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이 책은 ‘나는 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내 마음 한편에서 ‘나는 비교적 괜찮은 성도로 살고 있으니 십자가의 진

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았음이 당연하다’는 내면의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있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행함’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질수록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되새기지 않으면 부지중(不知中)에 얼마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십자가 사역 위에 견고하게 선다. 하나님이 놓으신 십자가의 기초는 튼튼하다.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이며,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대한 승리와 구원을 의미한다. 우리는 매 순간 모든 부분에서 십자가 승리의 완전함을 굳게 붙들고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요구하는 크고 높은 수준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이다.

타락하고 잃어버린 세상에 전해야 할 ‘십자가의 도’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아 선포하신 바로 그 메시지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

첫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해

십자가 경험과 도

야 한다. 둘째,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십자가의 말씀 전체’를 선포해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의미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주신 권세를 의지해서 담대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선포할 뿐이다.

적용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선이다. 삶의 분주함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뛰어넘어 거룩한 긴장을 회복해야 한다.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복음과 율법의 모호한 경계에서 우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곧 십자가가 나의 중심에 깊게 뿌리박히는 것이다. 십자가가 나의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 잡을 때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언어조차 변화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율법의 요구를 나의 의로 이루어내려는 어

떠한 시도도 경계하고,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유함 속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인지, 나의 계획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철저히 살피야 한다.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설 때 복음의 참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는다.

참맛을 전하는 선행한 복음 증거자로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대속하셨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책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정직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떤 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에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명령체를 썼습니다.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능동태인 것 같지만 부정사를 썼습니다. NIV 번역이 이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2절b).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라”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변화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분별’은 열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변화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자”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변화 받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예배드림이 먼저고, 그로 인해 변화를 받고, 그로 인하여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된다면 그 전에 마음의 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이 안 됩니다. 왜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예배드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가 될 때 변화 받아지고, 그 다음에 분별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윤리 기준에 따라서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과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영적 예배공동체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로서 몸 된 지체로

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자로서 함께 예배공동체로 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을 하나님이 영적 예배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히 13:15-16).

앞부분에 ‘찬양의 제사’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찬양의 제사가 있고, 뒷부분에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영적 예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예배와 수평적인 예배입니다. 예를을 드리려 갈 때 누군가와 다툼이 있어서 기억이 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관계를 화해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과 나눔을 행하는 것이 예배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직적 예배공동체의 모습이 있고, 수평적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직적 예배공동체의 모습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수평적 예배는 섬김과 나눔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섬김과 나눔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색의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 긍휼을 베푸는 일 등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영적 태도를 하나 말씀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양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헬라어 ‘메트론’은 양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메트론’이 ‘미터(m)’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대로’라고 번역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다는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단 한 가지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 능력, 성취,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

직 믿음으로만 평가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 받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높게 평가하거나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준으로만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에 빠지면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세상 속에 참된 예배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느 지체가 기능이 뛰어나게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 지체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그 많은 은사들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십니다. 또 어느 지체가 눈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섬기는 예배공동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다른 이들의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고, 함께 섬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은사를 보면 분명히 그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은사는 없었을지라도 권면하고 예언하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은사가 하나 됨을 통해서 안디옥교회에 섬김의 역사가 나타났고,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습니다.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 섬겼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마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영적 예배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순에서 만나든, 사역팀에서 만나든, 어떤 관계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고, 세상 속에서 섬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예배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러져야 합니다. 함께 세상 속에서 선행과 나눔을 베푸는 것을 소홀히 않는 예배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순회 칼럼’

“이곳에 남아 주겠니?”

“하나님 그 많았던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며 따랐던 아이들이었고, 학교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 인사하고, 웃고 떠들며 교회 일을 돕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회 빈 자리가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했다. 주일 날 하나님께 서글픈 질문을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있었다.

“주희야, 슬퍼하지 마. 내가 알곡만 남겨두었다. 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사실 나는 성도 수의 증가와 개척한 교회의 숫자가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인원을 확인하는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빠진 인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시간에 자리를 지키게 하는 철칙을 세우기도

했었다. 교회에 남은 아이들은 15명이 되지 않았다. 그중에는 다른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다. 실제 인원은 더 부족해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셨다. 한 명이 다섯 명 이상의 몫을 감당할 만큼 그들에게 영성과 체력, 헌신적인 마음을 부여주셨다.

코로나19 구호품을 어깨에 메고 가가호호를 돌았다. 비와 땀으로 온 몸이 흠뻑 젖어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20kg이 나 되는 구호품을 메고 1km 이상을 다니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2-3명이 구호품을 나눠 들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과 감사가 몰려왔다. 여학생들은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다.

이 지역은 학비 3-4만 원을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 아이들

은 선교의 비전을 품고 방학 동안 벽돌을 만들고, 담장 쌓는 일을 해서 마련한 3만 5천 원을 아끼고, 용돈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전기도, 물도,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일주일 지내면서 간단한 예배처소를 그들 손으로 지었다. 노방전도의 결실로 그곳에서 두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셨다.

올해는 유난히 힘들었다. 피할 수 없는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체력이 자주 바닥이 났고, 크고 작은 사역이 많았다. 영적 고갈도 빈번히 찾아왔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투덜거렸다.

“하나님, 이 정도면 현지 아이들도 잘 돌봤고, 케냐에서 14년이면 할 만큼 했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시골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너무 지

쳤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다.

“주희야 이곳에는 나의 자녀들이 있단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 가정을 그곳에 보냈단다. 이곳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곳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주렴. 나의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렴. 일은 내가 할 것이야. 이곳에 남아 주겠니?”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있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기쁨의 티끌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련다.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주님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 우주희 선교사(케냐)

서빙고 O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증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 시간: 매주 목요일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 2층(용산구 한강대로 363-2)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임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점출은전구 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안산온누리M센터 단기 봉사자 모집 내용: 미술전시회 작품 보호 및 안내 장소: 서울 남산도서관 1층 남산갤러리(용산구 소월로 109) 일시: 아래 일시 중 1~2일 봉사(11월 22일(화)~25일(금) 13:00-17:00, 11월 29일(화)~12월 2일(금) 13:00-17:00) 문의: 온누리지역아동센터(031-491-9601)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모집 모집: 몽골,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 자녀들을 섬겨주실 교사 시간: 유치부~초등3학년(11:00-12:30), 초등4학년~중학생(11:00-14:00)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안산 온누리M센터 성탄 연합예배 및 M Festival 성탄 선물 후원 요청 물품: 복도리, 장갑 등 겨울용품 및 생활용품, 소량 후원 가능 문의: 정연웅 간사(031-491-9650) 서빙고 한마음공동체 피아노반주자 모집 시간: 주일 오전 10:30~오후 1:00 대상: 코드반주가 가능하며 예배팀 경험에 있는 분 문의: 김재혁(010-3353-9150)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안드로이드 개발자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양재 O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송기선 팀장(010-3778-0776)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영어 놀이 프로그램 ‘Dream Seed’ 교사 모집 모집: 소그룹 모임: 2023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수업: 2023년 3, 4월 토요일 장소: 도곡교육관 B동 1층 꿈아이홀 문의: 박정옥 코치(010-4394-9309) *교사 자녀가 드림씨드 등록 시 등록비 할인 혜택
--	--	---	--	---

부천 O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대전 O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중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10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O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양지 O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김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산교센터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2로 61 2층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소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얼바인 박신용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오를랜드 유현욱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서진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 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8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8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박철웅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병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욱 김승경 김상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중아 김중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한구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배

도육환 려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근범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철 박철중 박형준 배형삼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식
스티브 안사뮈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영준
유진아 윤매리아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서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정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찬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영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영영 최대용 최성근
최정민 최영민 최용준 최충현

최희경 추대식 하성희 하정훈
한은선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예진 신대중 신현민 송동주
오현교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조은광 주하늘 전선미

◆목사(준전임)

구혜미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성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경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세환 김용산
김은하 김중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박주봉
박씨마 박영규 백승현 비 컬
서영철 상우애는 사가르 에릭 마

아를스톨즈 윌리엄 이성광
이세영 이진이 이진희 윤준석
윤치연 전 진 제인랑 차재미

◆전도사(파트)

강하람 강현구 권여람 김가희
김지환 강동규 김반석A 김반석B
김세미 김수영 김영진 김의연

김종민 김중아 김중호 김철희
김지선A 김지선B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헤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씨미 박은혁 박예슬 박유진

배정우 배진우 박찬양 박대연
배명지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송재찬 신기환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해예원 안류택 양현모
오국현 오성광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성하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신혁 윤종연
윤태정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선영 이송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신숙 이신일이세영 이은푸르
이요한 이진수 이주원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목 이휘영

임광택 임도환 임동현 임승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장지훈 정기은

정성민 정연영 정연상 정예은
정준혁 정주영 정희애 정영민
조민희 조슬기 지수정 주찬휘

진성희 진유석 최규중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대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승기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구재영 권득환 권영석
강용성 권철준 강경선 강기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상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목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주영 김성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종건 김중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환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용래 박상승 박성봉 박성근

박영대 박승국 박종현 박찬민
박태섭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연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진 송일섭
송재찬 송창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대 안종민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남 원우원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윤기홍 윤성일 유은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근 이용대

이장모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광주 정문영 정병호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주호 정희원
조창진 조수일 조은일 조상록

차준구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태중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광식 함선호 함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대표 홍병식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광병철

곽진성

권오혁 권경하 김광하 김수광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병순
김병호 김상섭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록 김영국 김현희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재국 김재일 김철민
김정훈 김중앙 김중호 김준규

김지홍 김창식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현주 김형걸
김형식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효구 김효구 김효진 나광욱
나 영 나영옥 남병현 남상길
남상우 남희수 남상원 류기범

남영환 문성찬 문영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병국
박병률 박성규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환

박영환 박일근 박일민 박일환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환
채수삼 최장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양수광 최도환 박지연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충훈 최교명 합지연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원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세원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승우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성민 이상도 이상을 이상배
이영근 이상복 이영란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학일 이태달 이현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모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정영기 정병호 정영택 정영환
정영진 정문규 정상기 정영관

정영섭 정준오 정원택 정영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정학영 제무성 조대식 조대환
조성환 조서수 조성현 최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람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원재
최형수 최호림 하주현 한백재

허영환 허필우 허광민 허성남
한충희 한필규 함일식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혜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환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양수광 최도환 박지연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충훈 최교명 합지연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원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세원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승우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성민 이상도 이상을 이상배
이영근 이상복 이영란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준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원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세원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승우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성민 이상도 이상을 이상배
이영근 이상복 이영란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준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원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세원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승우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성민 이상도 이상을 이상배
이영근 이상복 이영란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준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원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세원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승우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성민 이상도 이상을 이상배
이영근 이상복 이영란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준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원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세원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승우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현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설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승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경미

이현우 장재우 장현호 장희진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규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현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설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승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경미

이현우 장재우 장현호 장희진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규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반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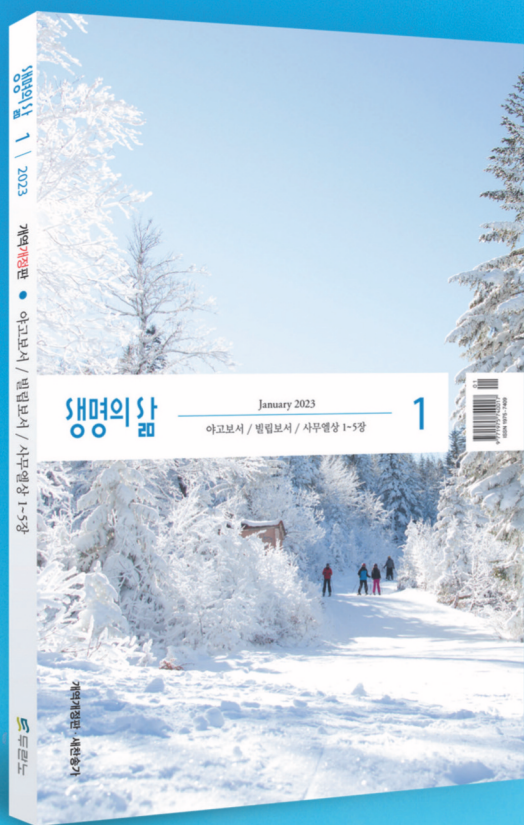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

두란노



2023년, 다시 말씀으로!

오늘, 예수 안에 살다



청·장년
생명의 삶
(개역개정/우리말성경)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준비하세요.

생명의 삶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두란노 차세대 QT



청소년
sena
(새벽나라)



유년·초등부
예수님이 좋아오
(고학년/저학년)



유아·유치부
예수님이랑 나랑

두란노

가정예배 캠페인

2023년에는 큐티로 가정예배



지침서 바로가기

개인의 목상이 가정예배로 이어집니다.
두란노 전 연령 QT지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 코너'가
매주 지침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 1.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예배**
자녀 눈높이에 맞춘 가정예배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 2. QT 생활화를 이어 가는 가정예배**
가족이 매일 QT를 하고 함께 나눔으로
'매일' 가정예배를 이어 갑니다.
- 3.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가정예배**
가정예배 후 가족이 함께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